



## 고 김 호직 박사님 12주기 추도식 지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한국에 심으시고 그 썩을 보시려고 애쓰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 호직 장로님의 돌아가신지 12년을 맞는 추도식이 지난 8월 31일 가족과 몇몇 성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고인의 묘소에서 있었다. 1959년, 그분은 이 세상과 달리하시기 몇일전 자신이 뭇 일 곳을 찾아 확인하시는 등 몇몇 이상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이는 얼마되지 않는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후임으로 지방부장을 맡은 바 있는 현 선교부장 부라운 박사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유족으로는 부인 박필근 자매(동부지구 참석)·와 장남 신환(이태리에서 성악전공), 차남 태환(캐나다에서 대학 교수-박사)이 있고, 장녀 정숙(북번지구 참석)과 차녀 영숙(동부지구 참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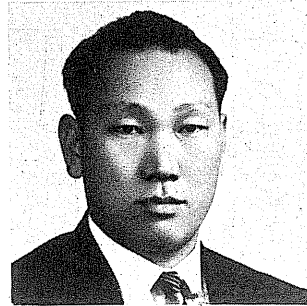
## 각지구 유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갖다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방학 생활을 뜻 있게 보내고 그 연령의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부 산하의 23개 지구 주일학교 유년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3일에서 7일간씩 개최한 바 있다. (사진은 부산 동구지부의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어린이들)

## 8월 지방대회 개최

“삼개월에 한번씩 대회를 개최하여...”(교성 20:61)란 주님의 말씀의 좇아 계획된 1971-72년도 마지막 지방대회가 8월 8일 서중앙 지방부로부터 시작되었다. 선교부 계획에 따라 가정복음 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특송 서한 계획을 부제로 다루었던 이번 대회는 전체 역원회, 신권 역원회, 총회 등 모임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강조되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주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 일으켰던 훌륭한 대회였다.

선교부장 부라운 박사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 복음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특히 “신권을 가진 형제들이 회원을 돌보는 것은 의무이기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하였다. 각 지방부별 지방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서중앙 8월 7일→8일, 동중앙 8월 14일→15일, 호남 8월 21일→22일, 남부 8월 29일→30일.



## 차 박사 원예대학장에

중앙지방부 지방부장으로 주님의 사업에 봉사하다 교환 교수로 도미하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차 중환 형제는 최근 동 대학교

원예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여 자신의 연구생활과 함께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1일 도미한 바 있는 그는 11월에 출판 예정인 “사막 식물의 생리 생태학”을 최근에 탈고한 바 있으며 그간 십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곳 학계에 주목을 끈 바 있었다. 그곳의 한국인 성도들과 함께 지부 조직을 목표로 교포 내지는 유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게을리 않고 있는 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Dr. Jong Whan, Cha  
6501 E. Alondra Bl.  
Paramount, Calif. 90723  
U. S. A.

## 광주지구 청소년 대회 갖다

교회에서 닦은 신앙생활을 검토하고 젊은이들의 협동 정신과 물론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광주지부는 지난 8월 24일 백양사 부근인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장성 실험림에서 1박 2일의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42명이 참가하여 10년내의 폭우로 상처난 교량 2개소와 도로 5개소를 보수하며 목적지에는 다른 대회 참가자들은 그곳에서 있었던 훌륭한 대회 이후 평소의 2배의 상향회 참석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호남지방부는 올해의 청소년 대회를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소한 바 있다.